**창4822 Note**

**◆본절에 대한 호크마 주석**

성 경: [창48:22] 주제1: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주제2: [요셉의 분깃]

▶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 사실인양 표현하고 있는 귀절이다. 훗날 가나안 땅 분배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기 한 지파로 인정되어 기업을 차지하였다(신 3:13; 수 13:29-33;16:1-17:18). 따라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 내가 내 칼과 활로...빼앗은 것이니라 –

이 역시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의 사업을 마치 자기의 손으로 이미 행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그의 후손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묘사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아모리' 족속이란 말도 가나안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본절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이들 족속과 교전하여 가나안 땅을 확보하리라는 예언이다.